



대행스님

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질문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. 삼의고너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. <글책임: 편집자> ●보낼곳: 우 110-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-33 현대불교신문사 '길을 묻는 이에게' 담당자 ● 인터넷: www.hanmaum.org 또는 한마음 선원 ● FAX: (031)470-3116

길을 묻는 이에게



법공양 페이지

모든 것을 다 집어 넣었으면 내놓을 줄도 알아야 보살행

남씨가 몹시 춥다고 그래서 '장소도 변
번치 않는데 어찌나!' 하는 생각을 했습
니다. 그런데 오늘은 너무 춥지 않은 것
같아서 다행입니다. 이렇게 한 참에 떨
어졌다가 참나에 한자리를 하게 되는 것
을 감사히 생각하면서, 오늘 마음과 마음
을 전달하는 도리를 알기 위해서 한자리
를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.

어린애들은 발걸음을 떼어놓기 위해
천방지축 걸어가는데, 그럴 때 그 어린애
가 '내가 가다가 넘어지면 어쩌나!' 하고
뛰어가지는 않습니다. 아무 생각 없이 그
냥 발걸음을 떼어놓는다는 기쁨으로만
그냥 땀 뻘이죠. 그렇지만 여러분은 살아
가면서 '구멍이 빠지면은 어쩌나, 잘못
되면 식구가 다 죽을 텐데...' 하는 생각
에 의해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는 경
향이 많다고 봅니다.

그런데 마음이 우선적입니다. 내 마음
으로 하여금 바깥으로 바로 경계가 나옵
니다. 바깥으로 작용이 나오고 작용이 나
오면은 어떠한 경계가 완전히 나타나죠.
망하든지 흥하든지 말입니다. 그러기 때
문에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중요하지 모
릅니까. 왜 이런 말이 있죠. 더하고 덜하
고 없는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쓰는 마
음씨가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고, 행
동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에 적합한 모든 것
이 다 이루어진다고요. 그래서 크고 작고
돌이 아니다. 그 가운데에 내 마음이 스
로서 자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이
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

어떤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은, 여러
분은 관습에 젖어서 고정관념에 젖어서
영 뉘지를 못해요. 이론으로만 세상을 사
는 게 아닙니다. 아는 것만 가지고 사는
게 아닙니다. 결국은 행을 하는 겁니다.
꼭꼭 한생각을 했으면 그대로 묵묵히
걸어갈 뿐이고 작용을 할 뿐이죠. 그러기
때문에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진실로
서 한 발짝 떼어놓고 행을 하는 것이 문
제지 아무리 말로 이론으로 지식으로 안
다 하더라도 그런 소용없는 일입니다.

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
아니다. 일체 모든 부처님, 즉 말하자면
부처님 이름도 허다하게 많죠? 그 많은
이름의 부처님이 앞에 있어도 집어삼켜
라, 역대 조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집어삼
켜라, 중생이 있다 하더라도 집어삼켜라,
입체를 닦치는 대로 집어삼키라는 뜻은
무엇이냐? 내 마음에는, 마음이기 때문
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
들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첫째, 마음
을 먹는 것이 우선입니다. 마음은 채가 없
어요. 채가 없기 때문에

한 구멍에 다 놓는다면 놓은 그 자리에서
다시금 생겨나니까 한 구멍으로 들고
내는 작용이 그대로 법이죠. 내가 혼자만
안다고 세워 봤자야, 여러분이 잠시 잠깐
생각을 하셔도 몸 속에 수많은 중생들과
떨어져 자기 마음의 부처와 둘이 아닌데
어떻게 나 혼자 살고 있다고 내세울 수 있
겠습니까? 여러분이 아무리 이론으로 잘
알고 마음 공부를 잘하고 간다고 하더라
도 둘이 아닌 까닭에 내세울 게 없다는 얘
기죠. 내세울 게 없는 자기 몸을 관리인
사로서 나갈 수 있다면 그대로 하나하
나 어떠한 부분의 소임을 맡아 가지고 하
든지, 그 맡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만
다 하는 거지 단 데서 하는 게 하나도 없
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
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입력됐
던 것이 지금 나오는 거니까, 아주 간단하
죠. 거기다가 되인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
이 없었지나 그릇이 항상 빈다는 겁니다.

모두 하루살이로 살라고 말하면 한 적이
있습니다. 그것은 왜냐하면, 모두 사랑을
한다고 말할을 하죠. "나는 당신을 사랑
해, 나는 아들을 사랑해." 뭐 누구냐가 그
저 만나서 좋으면은 사랑이라고 하는데
말입니다. 그 사랑도 참나 사랑이지 착을
두고 사랑을 한다면 그릇이 항상 비지를
못해서 진짜 사랑을 못해요. 마음에 참나
에 전하고 끝없이 연결되는 원인이, 참나
참나 만나고 연결되고, 마음과 마음이 연
결돼서 세상만사가 돌아가니까 그렇게
끊임없이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
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.

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건 무심(無心)
의 도리이고, 말과 말이 연결돼서 돌아가
는 건 유심(有心)의 말이에요. 무심과 유
심이 어떻게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? 마
음속으로 생각했던 거하고 말하는 거하
고 어떻게 둘입니까? 그런데 마음 속으로
는 속일 수가 없지만은, 속이지 않아도 될
수 있지만 말로는 속이는 게 많다는 얘기
죠. 하지 못할 말이 많고 말입니다. 그러

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진실로 한 발짝 떼어놓고 행하는 것이 문제

수만 명의 선지식들, 부
처님을 낳어도 두드러
지지 않아요. 한참나에
이 세상을 다 집어넣는
다 하더라도 두드러지
지 않아요. 들고 나는 문
은 한 문이요 한 구멍이
예요. 그게 문 없는 문이
예요. 한 세상을 다 집어
넣고, 가정을 다 집어넣
고, 역대 조사 역대 부
처님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
이 소립니다. 다 집어넣었으니까 다 내 놓
아야죠? 그래서 다 버리고 나니깐 다 일
터! 일고 나니깐 버릴 것도 없더라! 이
렇게 되는 겁니다. 모든 걸 집어넣어도 두
드러지지 않고 다 집어넣었으면 다 내놓
을 줄 알아야 그게 보살행이라고 할 수 있
습니다.

항상 얘기하지만 변화해서 화(化)하고
돌아가는 이 세상이 '변화' 이렇게 두 자
만 했어도 그 속에 엄청난 돌아감이 서리
고 있습니다. 보세요, 그 변화가 어떻게
왜 돌아가나? 천차만별의 만물만생이 변
하여 화(化)하고, 또는 고정점이 없이 나
투면서 한나를 돌아간단 말입니다. 그
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? 공생
공식 공체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
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이 다 공동본
담으로서 돌아가니까, 나를 세울 게 없
니까 공덕이라고 하는 겁니다.

이 이치를 다 알기 위해서는, 지식으로
나 이론으로나 확신으로 아는 것을 놔버
려야죠. 버리라는 게 아니라, 그것을 놔야
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

나 진실하게 나를 끌고 다니는 나의 주인
한테 진짜로 한 일과 하고 돌아가는 일과
말한 것을 전부 잡 알기 때문에 그 주인은
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
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속마음이 바로 우주
천지하고도 직결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.
만물과도 서로 직결이 돼 있고 입체제
하고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. 그러니 여
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마음으로 속
이려고 해봤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
그래서 그 도리를 모르고 짓는 죄는
모르게끔 받고 알고 짓는 죄는 알고 받게
마련이다 이 소립니다.

참나의 사랑, 참나의 행, 이 세상을 다
주고도 바랄 수 없는 도리를 배우는 겁니
다. 지금,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묘한지
여러분이 깨닫고 깨닫지 않고 이전에 실
질적으로 행할 수 있다면, 그대로 진실하
게 행한다면, 그대로 진실하게 행한 도리
의 그 그만큼은 나옵니다. 그래서 부처님
께서도 내 모습의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
라. 너의 마음 속에, 얼른 쉽게 말해서 안
테나를 세운다면 그 주장자로 인해서 내
주장자와 네 주장자가 둘이 아니니라. 그

래야만이 내 주장자를 참나에 너를 줄 수
도 있고 참나에 네 주장자가 나한테 올 수
도 있다. 얼른 쉽게 말해서 참나에 통신이
된다 이 소리죠. 이 세상만사가 다 어지러
온 것 같지만 아주 간편합니다. 뭐 내일
걱정 어저께 걱정, 어저께 후회, 앞으로
살아나갈 걱정을 하면서 모두 야단들인
데요. 그릇을 항상 비우면서 참나 생활로
살라고 하는 건, 정말이지 영원한 삶을
갖다주는 겁니다. 부부기간에도 부모자
식기간에도 참나 사랑이라는 것은, 부
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럽게 행해주고 서
로가 서로를 만날 때 둘이 아니게 진정한 자
비로서의 만남이, 그냥 그 마음이 그대로
떨어져야죠? 거기다 착을 두면은 진짜 사
랑을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.

그래서 모든 것은 주인공 뿌리에, 나무
가 푸르게 살려면 모든 것을 뿌리에 맡
겨라, 뿌리는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
려보내고, 나무는 모든 에너지를 또 흡수
해서 내려보내고 서로가 서로를 상응하

진짜 물리가 터져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
런 진실한 마음이라면, 진짜로 믿고 그
렇게 하면은 둘이 아닌 도리에서 체험을 하
고 가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지름길입니
다.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말 되라고
하는 말 되 하는 것 같지만, 여러분이 한
마디를 듣고, 불 한 모금 마시고 손 한 번
땀기는 걸 가지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
마나 좋겠습니까? 그러니까 되풀이하게
되는 거죠. 왜 절에서 중을 올리는 줄 아
십니까? '영혼들을 불러서 종소리를 들
려줌으로써 그 영혼의 귀가 트이고 눈이
열려서 이 세상만사가 돌아가는 섭리를
알라. 네가 이거를 알아야 영원한 삶의
보람을 느낄 수 있다.' 하는 소립니다. 그
러니 이 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하지
모릅니까.

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
세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'아이고! 그
거 정말 그럴까? 그럴 수가 있어?' 이
렇게 생각하고, 한 사람은 아예 믿질 않았

지도 않은 사람은 가장기가 돼서 추운 거
울에 발발 떨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
고생이 많았습니다.

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그
마음이 얼마나 중요하지 모릅니까. 여기
도 허다합니다. 중병이 들었는데도 어떠
한 생각을 했던지 완치가 되고, 어떤 사람
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완치가 못 돼요.
그게 누구의 탓입니까? 제삼자가 밥을 먹
어서 배가 부르게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이
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같이 거들어주는
건 모르지만 벗어나는 건 자기가 자기
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다는 사실입니다.
우리가 진짜로 자기 뿌리를 믿는다면,
'항상 얘기해 드려요. 또 할까요?' 하
려,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
업 선업이 자기 영혼에 부착이 되고, 그럼
자처럼 부착이 돼서 따라다니거든요. 그
런데 영혼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
로 인해서 자기가 차원대로 자기 그릇대
로 끼리끼리 만나야 하니까, 자동적이거
든요, 그게, 즉 말하자면 무쇠는 무쇠 굴
에 들어가고 금이든 금 굴에 들어가는 거
죠. 그래서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탄생이
된다 이겁니다.

탄생이 되면 악업 선업이 영혼에 부
착이 돼서 따라 다니던 게 지금 몸 속에 다
있는 거죠. 이게 현실입니다. 몸 속에 다
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대로 자
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독 안에 들어
도 못 면하게끔 돼 있는 거니까요. 그런
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가지고 자동적
이러든가,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참 무
서운 겁니다. 팔자운명이라든가 영계성
이라든가 유전성·업보성·세균성·인
과성이 한꺼번에 거기 들어있으면서 그
저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. 그런데 이거는
당하는 사람은 영 모르지 않습니까?
그러니 입력된 그 자리에서, 그 뿌리
에서 나오는 거니까 뿌리에다 자꾸 누적

살기 때문에 대전에 지
원이 생겼으면 하고 늘
발원을 했었는데, 스님
의 큰 원력으로 대전의
모든 이에게 법을 전할
수 있게 개원되어 큰 축
복으로 환희하고 있습니
다. 감사드립니다. (대중
박수)

지구상의 인간은 3차
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
고 알고 있습니다. 우리
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지구와 인간과의
관계, 그리고 우주와의 관계를 중생들이
알기 쉽게 내면적인 면과 외적인 면에서
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.

▲스님: 여기는 3차원이다 이렇게 생각
하시겠지만,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3차원
이 되기도 하고 4차원이 되기도 하고 6차
원이 되기도 하고 2차원도 되고 1차원도
될 수도 합니다. 그러니까 3차원이라고
못을 박을 수가 없죠. 이걸 사람들의 기준
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요. 우리가 공부하
는 것도 그렇구요. 그러나 예전에도 얘기
했습니다마는, 대외적으로는 우주와 인
간의 근본 마음과 더불어 같이 직결이 돼
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세상만사가 거
아가는 근본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 가
설이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하
서 천상에서 보면 색경 속에 다 잘못하고
잘하는 게 나타나니까, '요놈은 좀 가르
치기 위해서 벌을 줘야겠다. 착하게 했으
니 상을 줘야겠다.' 이 소립니다.

착을 두고 사랑을 한다면 그릇이 항상 비지를 못해서 진짜 사랑을 못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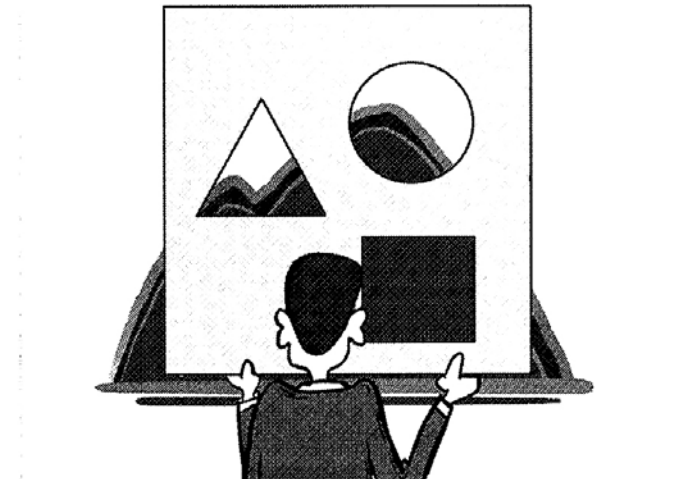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서 푸르게 살 수 있다. 그러나 나무가 편
뿌리의 이름을 찾거나 편 나무의 형상을
믿거나 한다면 그건 기복이지 공덕이 될
수가 없어요. 그냥 에너지가 이쪽 뿌리
에서 저쪽 뿌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물론
내 나무에서 내 뿌리를 믿는다면 그 뿌리
로 하여금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모든 에
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, 이름
과 형상을 찾아 헤맨다면 공덕은 하나도
없다고 답마대사도 말했지 않습니까?

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있지
않겠습니까? 소나무가 향나무를 찾으면
서, '향나무,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나 나
에게 에너지를 좀 줘.' 하고 아무리 기도
를 해봤던들 향나무에서 에너지가 소나
무로 갈 수가 없어요. 반드시 제 나무의
뿌리만이 자기 나무를 위해서 올려보낼
수 있죠. 그 나무는 일세 하나도 따로 있
는 게 아니라 전부 그 뿌리에 매달려 살면
서도 자기 뿌리를 무시한다 이겁니다. 여
러분이 다 알음알음하게 생각하고 뿌리
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못 믿어서 그렇
죠. 못 믿어서요.
먼저 배웠고 나중 배우고 이걸 떠나서

니다. 한 사람은 진짜로 자기 뿌리를 믿었
습니다. '잘났든 못났든 내가, 그 못난 뿌
리만이 못난 나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
해주겠다. 우리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
모이듯이.' 그러면서 지극하게 믿고, 부
모의 제삼날인데도 그저 보리죽 한 그릇
을 쑤어서... 할 게 없으니까, 부부막에
물 한 그릇 떠놓고 향 한 개비 켜놓고 제
사를 지내면서, '아버지 뿌리, 어머니
뿌리, 내 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
한자리를 하소서! 시장했던 것이 한 톨
로서 화(化)해서 바로 양식이 되리다.' 하
고 그 부모한테 했답니다.

그랬는데 그렇게 가난하던 사람이 말
입니다. 어떤 친구가 별안간에 찾아와서
마음을 주더라고요. 일 좀 해달라고. 어디
로 이사를 가는데 다 말리고 가더라고요.
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주 잘살게 됐
습니다. 그 나중 얘기는 생략하고요. 그
랬는데 못 믿는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못
믿는 것만큼 그렇게 살더라고요. 나무로
친다면 일세가 단풍이 들면 떨어지듯이,
뿌리는 영원하지만 그 일세는 떨어지고
없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

되지 않게 닦치는 대로 놓고, 부처님이 닦
쳐도 돌이 아니다 하고 놓고, 어떤 것이 닦
쳐오더라도 돌이 아닌 까닭에 '너만이 할
수 있어.' 하고 그냥 놓는단 말입니다. 그
럼으로써 세로이 입력이 돼서 들어가니까
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오
간 지옥도 무너진다는 소리죠. 그러니 자
꾸 세 그릇에 담기면서 그릇이 비고 하니
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? 새로이 넣는 것
이 현실에 나오고 현실로 나오면 즐거우
고,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화나게 하는
놈도 그놈이니까 안 나게 하는 놈도 그
놈이죠. 메시지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진짜
사랑할 수 있고, 진짜 다복할 수 있고, 진짜
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.

예전에 그런 말도 있죠. 지장보살은 중
생들을 다 이끌어서 견져놓고 자기는 맨
뒤쪽에 간다고 문고리를 붙들고 백날 천
날 끝간 데 없이 있어도 영 문고리를 떼어
놓을 수가 없더라고요. 연방 새로 오고 새
로 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
죠. 나고 죽는 게 끝이 나는 게 있습니까,
어디?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진짜로 알
려면은 아는 것 전체를 놓고, 오신통도 벗

어나야 오신통의 이치를 굴릴 수가 있는
겁니다. 오신통이 이 통에 들었다면 이 통
을 벗어나야 마음대로 굴리고 마음대로
쓰지 통 안에 들어가서는 그 통을 굴릴 수
가 없죠. 그런 거와 같습니다.

관하는 법만 온전히 체득을 한다면, 아
예 이 시간부터라도 정말 말로 형용할 수
없는 법이 나옵니다. 못 믿지 마세요! 나
무는 천차만별로 이름이 있고 모습이 다
르지만 뿌리라는 그 한 마디의 이름은 다
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 나무 제 뿌리에서,
제 뿌리가 자기를 돕고 열매를 맺게 하고
꽃이 피게 하고 바로 만 가지 맛을 나게
하는 거지, 아니 제 나무에서 익지 않은
과실을 무슨 맛으로 찻습니까? 제 나무
에서 무익하여 맛이 나죠. 제 나무에서 설
은 거 따서 아무리 먹었다고 돌려봤자 그
거는 먹지 않습니다. 먹을 수가 없죠. 또,
그와 같이 지금 가르치는 관법은 생활선
(生活禪)이면서 예래선(如來禪)입니다.

여래라는 뜻은 일체 상하 사랑이, 사무
사유(四無有)가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
그 자체를 포착한 것이 바로 여래입니다.
그걸 또 간단히 말하자면, 몸과 몸 속에
있는 중생들과 나와 둘이 아니다, 이게 여
래입니다. 여러분! 여러분 몸 속에 세포
하나하나에도 생명들이 들어있고, 생명들
이 얼마나 많습니까? 많은 생명들을 다
같이 하나로 가지고 있다. 이것이 여래입
니다. 그래서 아주 적게 생각을 하면 여
러분이 다 부처고 여래입니다. 그것을 포
착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내가 여래인지
도 모르고, 전체가 여래인지도 모르고, 여
래가 뭔지도 모르고 여래가 어떠한 개별
적인 인간 이름인 줄 알고 나가거든요. 돌
이 아닌 까닭에 여래라는 이름이 나왔고
여래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돌이
내고, 즉 말하자면 여래는 여래고 중생은
중생이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.

그러니까 이 관법을 여러분이 아주 진
실하게 믿고, 무조건입니다. 아까 어린애
얘기 했지요. '무조건 내 뿌리를 믿어라!
형상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믿
으라는 것도 아니다. 그 가운데서부터 먼
저 알아야, 형상이든 이름이든 다 포착할
수 있어서 모든 걸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
다.' 이런 거니까 잘되고 못되고는 생각
하는 데에 따르고, 깨닫고 못 깨닫는 거
는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깨닫고 못 깨
닫는 거예요.

▲질문자: 송년법회에 질문 올리게 됨
을 감사드리며, 올해뿐만 아니라 세세생
생 한마음으로 늘 보살펴주시고 이끌어
주시며 더욱 감사드립니다. 특히 대전에

살기 때문에 대전에 지
원이 생겼으면 하고 늘
발원을 했었는데, 스님
의 큰 원력으로 대전의
모든 이에게 법을 전할
수 있게 개원되어 큰 축
복으로 환희하고 있습니
다. 감사드립니다. (대중
박수)

지구상의 인간은 3차
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
고 알고 있습니다. 우리
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지구와 인간과의
관계, 그리고 우주와의 관계를 중생들이
알기 쉽게 내면적인 면과 외적인 면에서
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.

▲스님: 여기는 3차원이다 이렇게 생각
하시겠지만,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3차원
이 되기도 하고 4차원이 되기도 하고 6차
원이 되기도 하고 2차원도 되고 1차원도
될 수도 합니다. 그러니까 3차원이라고
못을 박을 수가 없죠. 이걸 사람들의 기준
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요. 우리가 공부하
는 것도 그렇구요. 그러나 예전에도 얘기
했습니다마는, 대외적으로는 우주와 인
간의 근본 마음과 더불어 같이 직결이 돼
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세상만사가 거
아가는 근본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 가
설이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하
서 천상에서 보면 색경 속에 다 잘못하고
잘하는 게 나타나니까, '요놈은 좀 가르
치기 위해서 벌을 줘야겠다. 착하게 했으
니 상을 줘야겠다.' 이 소립니다.

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할 탓에 의해서
26면으로 계속